

도덕과에서 종교윤리교육의 중요성과 그 활성화 방안

- 고등학교 도덕과에서의 기독교 윤리교육을 중심으로 -

서 흥 교

(신목고등학교 교사)

《 요 약 》

우리의 도덕과 교육은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논자는 도덕과의 종교윤리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도덕과에서 종교윤리교육이 중요하다는 것과 도덕과의 종교윤리교육의 실태와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키에르케고르의 실존개념, 베르그송의 두 종류의 종교와 윤리 구분 및 관계 설정, 톨리히의 도덕과 종교의 관계 설정, 기독교에서의 신앙과 윤리의 관계를 통해 종교윤리교육의 중요성을 확보하려 하였고, 경험적 측면에서 종교가 도덕적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와 종교와 윤리의 부정적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종교윤리교육의 중요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도덕과의 교과교육학적 측면에서 종교윤리는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할 보다 근본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체계는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전인적인 차원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종교윤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도덕과의 종교윤리교육 실태를 보면, 종교윤리 관련내용이 한국인의 종교분포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종교간 구성비율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덕과의 교육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관련내용이 학생들의 실제적인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학생들의 도덕적 삶에 영향을 줄 만큼 종교윤리가 심화 있게 포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종교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도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도록 내용이 짜여져 있다. 앞으로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종교윤리교육을 중요한 도덕교육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종교윤리 관련내용을 양적, 질적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종교윤리를 반드시 중요한 종교적 교리와 함께 연결하여 제시함으로써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과 같은 근본적인 관점과 도덕적 생활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동시에 종교적 신념이 도덕적 행위로 표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종교심이나 종교적 감정에 호소하는 교육내용들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음과 행위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덕과의 종교윤리 관련내용 구성이 현재 한국인들의 종교 분포에 맞추어 종교간 구성비율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종교적 감정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리고 도덕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타당할 것이다. 종교와 같이 민감한 문제는 무조건 덮어두는 것이 좋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하며, 종교를 도덕교육의 장(場)으로 끌어내어 도덕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종교윤리, 종교윤리교육, 도덕교육, 종교, 윤리

I. 서론

지금까지 우리의 도덕과 교육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해왔다. 인격교육, 도덕성 교육, 시민교육, 통일교육, 체제유지 교육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육적 역할을 해 온 것에 대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설령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부인이 결코 도덕과 교육의 무용함을 입증해주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도덕과 교육은 여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역할 수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도덕과 교육의 존재이유와 유용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도덕과 교육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고 반성하고 수정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도덕과 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도덕과 교육의 존재이유와 유용성을 더 분명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논문은 도덕과의 종교윤리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도덕과의 종교윤리교육을 활성화시켜 도덕적 인간을 육성하려는 도덕과 본연의 임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도덕과는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학생들에게 세속적 윤리를 가르쳐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일반적 인식이 도덕과의 교육내용에 많은 한계를 가져왔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윤리교육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였다. 그리하여 도덕과 교과서에서는 종교윤리를 매우 피상적으로만 다루었고, 학생들의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줄만큼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논자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도덕과의 교육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도덕교육적 관점에서 종교윤리교육의 중요성과 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종교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이론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에서 몇 가지 근거에 의하여 제시해보고, 현행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현재의 고등학교 도덕과에서의 종교윤리교육 실태를 파악한 후, 앞으로 도덕과에서 종교윤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것을 위하여 특히 고등학교 도덕과에서 나타나는 기독교 윤리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덕과의 종교윤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한다.

II. 종교윤리교육의 중요성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절대적인 것을 찾으려는 본성이 있다. 인간은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이고 이상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은 윤리적 영역을 포함한 인간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그 영향력은 때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우리가 하고 있는 도덕교육도 인간의 종교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종교적 특성이 도덕에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최대한 늘리고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간의 종교성과 도덕성은 진정으로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인간의 종교적 특성은 과연 도덕적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설득력 있는 긍정적 답변을 제공해줄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들을 찾아봄으로써 종교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하려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의 특성을 알아보고, 종교와 윤리의 관계, 기독교에서의 신앙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종교윤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본 장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경험적 측면에서 종교가 실제로 인간의 윤리적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가를 알아보고, 도덕과 교육의 교과교육학적 관점에서 종교윤리교육이 왜 중요한가를 알아봄으로써 종교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이론적 측면

먼저, 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의 사상을 알아보자. 그는 인간의 세 가지 실존 양상으로서 심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 종교적 실존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인간의 세 가지 실존 양상을 자아 발달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위계적으로 배열된 세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할 때, 이 실존의 세 단계는 곧 실존 중에 있는 개인의 자아가 그 발달의 과정에서 거치는 단계로서(임병덕, 1998, p.167)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이다. 심미적 단계는 영원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유한한 시간성의 세계 안에 몰두하여 살아가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제어하기 어려운 충동에 따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여기서는 현실성과 가능성의 긴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윤리적 단계에서는 영원한 자아에 대해 알게 되고, 영원한 것이 내포된 자아를 의식하며,

현실성과 가능성의 긴장 속에서 현실적 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가능성을 추구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힌다. 윤리적 존재는 가능성의 구체적 형태인 윤리 규범을 추구하며 보편성을 지닌 가능성으로서의 윤리규범과 특수성을 지닌 자신의 현실성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과 고통을 느낀다(임병덕, 1998, pp.171-172 참조). 종교적 단계에서는 신 앞에 존재하는 자아를 의식하게 되고, 신을 자아의 척도로서 간주하게 되며, 현실성과 가능성의 긴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가능성이란 것이 윤리적 단계의 인간적 윤리규범보다도 훨씬 더 도달하기 어려운 신의 경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신이 그 척도가 되므로 자아에 대해 무한한 의미가 부여된다(S. Kierkegaard, 1983, p.334).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개념에서 윤리적 실존과 종교적 실존은 영원한 자아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 현실성과 가능성의 긴장 가운데 있다는 점, 현실성에서 벗어나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점 등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윤리적 존재와 종교적 존재 모두 자신이 영원한 영혼을 지니고 있는 영적, 정신적 존재이며 자아를 의식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도덕적 선악과 영원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적 실존이 윤리적 실존과 달리 신 앞에서 있는 자아를 의식하고 신을 자아의 척도로 간주한다는 것은 더 수준 높은 가능성을 설정하고 자신의 한계와 시간의 속박을 인정하는 가운데 신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있어서 그 윤리적 이상은 무한하다. 그 이상에 대한 지속적인 지향은 윤리적 존재가 자연스럽게 종교적 존재로 나아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적어도 종교가 윤리를 속박하지 않는 한, 윤리적 존재와 종교적 존재는 단절되지 않는 동일선상에 있으며 결코 모순하거나 갈등하지 않는다. 종교적 실존과 윤리적 실존은 본질상 서로 관련되어 있다. 윤리적 실존은 종교적 실존으로 나아감으로써 더욱 수준 높은 도덕성을 설정하고 이를 추구해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아의 질적 발달을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세속적 윤리보다 종교적 윤리가 윤리의 본질에 더욱 가까운 것이며, 종교적 윤리가 우리를 더욱 윤리적인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겠다.

다음으로, 종교와 윤리의 관계에 대한 몇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종교윤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베르그송(Henri Bergson)은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에서 두 종류의 도덕과 종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Bergson, 1998). 그는 기존의 사회체제 내에서 결속의 기능을 하는 사회적 계약으로서의 관습적 도덕과 현재의 상태를 시인하고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정적 종교를 서로 연관시키면서 정적 종교는 관습적 도덕의 기반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기존의 관습에 도전하는 창의적 도덕과 이를 유지해나가는 동적 종교를 서로 연관시킨다. 베르그송의 이러한 견해는 종교가 어떠한 측면에서든지 도덕을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으로서 종교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이성적 윤리와 신앙적 윤리의 구분을 없애고 종교적 원리가 도덕적 원리 안에 있

으며 종교가 근본적으로 윤리적인 것처럼 도덕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Long Jr., 1985, p. 42). 텔리히의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도덕적 명령 그 자체 안에 이미 종교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종교는 본질상 윤리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도덕과 종교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종교윤리교육은 윤리교육에서 필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나학진은 종교와 윤리의 상관관계에 대한 잉어(J. Milton Yinger)의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는다. ‘대체로 불교는 종교의 수단으로서의 도덕을 생각하는 듯하며, 유교에서는 도덕을 인준하기 위한 종교를 내세우는 듯하다. 기독교에서 때로는 종교의 수단으로서의 도덕을 내세우는 듯하지만, 도덕의 토대 또는 근원으로서의 종교를 강조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에 종교와 도덕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공존되면서 종교적인 삶은 도덕적인 삶으로 즉시 실천이 되고, 도덕적인 삶의 토대는 종교에 있음을 역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나학진, 1984, p. 16). 나학진의 이러한 견해도 종교와 도덕의 불가분리적 공존과 종교에 대한 도덕의 의존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종교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고등학교 도덕과의 기독교 윤리교육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도덕과에서의 종교윤리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기독교에서의 신앙과 윤리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종교윤리교육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또 이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에서 신앙과 윤리의 주체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그것이다(김중기, 1973, p. 97). 여기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실존적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십계명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나와 이웃의 관계를 잘 설명해준다. 예수는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이것이니--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가복음 12:29-30)는 하나님 사랑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가복음 12:31)는 이웃 사랑이 그것이다. 전자는 신앙을, 후자는 윤리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 기독교에서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따라서 모든 관계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와 이웃의 관계보다 우선한다. 즉 신앙은 윤리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신앙은 윤리를 초월하면서도 윤리를 포괄한다. 기독교에서 신앙과 윤리는 성서 내용의 핵심이 되는 복음(福音)과 연관지어 설명되어야 한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어 그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 값을 지불하게 하고 부활하게 하였고,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믿음이란 구세주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윤리란 자신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이다. 이처럼

럼 복음과 연관지어 설명할 때에도 역시 신앙은 윤리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였고, 2) 인간이 그 사랑을 수용하였고(신앙), 3)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4) 그 사랑에 감사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윤리).¹⁾

여기서 1)부터 4)까지의 단계는 논리적 순서이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도덕적 삶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 삶을 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수용하여 누리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부터 3)까지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기독교적 차원에서 올바른 도덕적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전 단계들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형식상의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며, 자기 의(義)로부터 생겨난 것이고, 진정한 감사와 즐거움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양심에서 나오는 자기 규율적인 것이며,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생명력이 없어 지속적이기 어렵고 진실하기 어렵고 견고하게 성장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 전 단계들을 거쳐야만 기독교적 의미에서 진정한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단계들은 모두 종교적 측면을 지닌 것으로 종교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준다. 물론 여기서 논자가 말하는 바는 기독교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형식적인 도덕적 삶을 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니며, 적어도 기독교인에게는 신앙의 문제가 윤리의 문제보다 우선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할 때 진정한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종교나 무신론자의 경우에도 1)~3)까지의 단계와 같은 종교적 또는 신념적 전제가 가능할 것임을 기독교의 예시를 통해 보여주고 하는 것이다.

2. 경험적 측면

인간의 종교적 성향이 도덕적 태도에 끼치는 영향은 이미 여러 경험적, 실증적 연구에 의해 잘 알려져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네덜란드의 어느 카톨릭 대학 교수들의 실증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Scheepers & Van Der Slik, 1998, pp. 678-688), 개인의 종교적 특성은 자신의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 수입과 같은 다른 특성들보다 자신의 도덕적 태도

1) 1)~4) 안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구세주를 통해 다시 관계 회복의 길을 열었으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 들어서게 된다는 계약에 기초하여 그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설명은 복음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독교의 일반적 교리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입각한 이와 같은 설명은 기독교인들의 크지 않은 이견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나 남편 그리고 부모의 종교적 특성이 또한 자신의 도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여러 학자들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적 참여는 종교 영역 바깥에서의 견해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해왔는데, 이러한 주장은 경험적 연구에 의해 지지되었다(Scheepers & Van Der Slik, 1998, p. 679). 또한 종교적 언어에 대해 연구한 레스닉(H. Lesnick)은 종교적 언어, 종교적 은유법, 종교적 문체를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 진리를 이해하고 이것에 의해 감화되는 면에 있어서 그리고 도덕적 진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며, 도덕적 실천의지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Lesnick, 2000, p. 356). 이러한 경험적, 실증적 연구 결과들은 종교적 생활이 도덕적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나의 종교가 보편화된 문화권에서만 아니라 여러 종교가 함께 공존하는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종교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유교, 불교, 기독교 등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각 종교인의 종교 생활이 자신들의 도덕적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것은 각각의 종교윤리교육이 우리의 도덕교육에서 중요한 것임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김종서는 여러 경험적 조사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종교와 윤리의 부정적 상관관계를 주장하고 있다(김종서, 1992, pp. 23-26). 전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종교인들이 비종교인들보다 더 호전적이며, 인종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오히려 동정심이 약하거나 기껏해야 비종교인들과 비슷하고, 타인의 여러 사회적 이탈행위들에 대해서 더 너그럽지 못하며, 이웃돕기 성금모금이나 정직한 행위 등 도덕적 실천에 있어서 비종교인들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못하며, 종교인들의 범죄율이 비종교인들보다 더 높거나 비슷하다는 등 여러 경험적 조사 연구들을 열거하면서 종교와 윤리의 부정적 상관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종교 그 자체가 비도덕적 행동을 가르치고 있다거나 도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종교가 지니고 있는 윤리성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종교윤리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즉 종교단체와 교육기관에서 하는 종교윤리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준다. 이것은 종교 그 자체가 아닌 각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종교윤리에 대한 바른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로서 종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종교 없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다면 종교가 도덕적 삶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은 종교교육과 윤리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므로 종교가 도덕적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하고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종교윤리교육을 도덕과에서 다루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제 학교의 도덕과 교육에서 종교윤리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도덕과 교육의 교

과교육학적 관점에서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도덕교육은 단순히 ‘~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교육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 지금까지의 도덕교육은 당위성만을 나열해 온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도덕교육은 피교육자에 대한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종교윤리는 이와 같이 도덕적이어야 할 보다 근본적인 근거를 제시해준다. 이것은 종교에서 제시하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등 보다 근본적인 여러 관점과 함께 윤리규범이 제시됨으로써 도덕의 설득력을 더 강화시켜 주기 때문일 것이며,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체계와 윤리규범이 결합됨으로써 도덕의 설득력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은 마치 뿌리가 약한 나무와 달리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잘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덕교육은 전인적인 차원에서, 생활의 전 영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가 있다. 지정의(知情意)라는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동시에 도덕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체계는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전인적인 차원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이 종교생활과 연결될 때 그것은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가정, 교회와 가정에서 배운 종교적 내용과 연결지어 학교에서 도덕교육을 받게 되면 그것은 피교육자에게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다가올 것이며 자신의 삶에 더 수월하게 적용할 수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와 도덕과 교육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며,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의 도덕교육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종교윤리를 모든 생활 영역에서 보다 전인적으로, 보다 일관성과 통합성을 가지고, 보다 활발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여 도덕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는 기독교를 한 예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불교나 유교나 또 다른 종교의 경우에도 각 종교단체와 가정과 학교의 종교윤리교육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동일한 결론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은 도덕과의 종교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방법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현재의 교과서 구성방식과 도덕과 교육방법을 유지한다고 해도 논자의 제안은 실현가능한 것이다.

Ⅲ. 도덕과의 종교윤리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1. 도덕과의 종교윤리교육 실태

그렇다면 지금까지 고등학교의 도덕과에서 종교윤리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이제

고등학교 도덕과의 종교윤리교육 실태를 알아보자. 여기서는 제6차와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6차 윤리과에서 나타나는 종교윤리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제6차 윤리과의 종교윤리 관련 내용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구체적 내용
I. 인간과 윤리	1. 인간의 삶과 윤리	(1) 인간의 특성	유교, 불교, 도교에서 보는 인간의 특성
I. 인간과 윤리	1. 인간의 삶과 윤리	(2) 다양한 인간관	유교, 불교, 도교의 인간관과 크리스티교적 인간관
II. 사회와 윤리	2. 현대사회의 생활윤리	(5) 종교생활윤리	종교의 의미와 기능, 종교와 윤리의 관계
IV. 윤리사상의 흐름과 특징	1. 동양의 윤리사상	(1)~(3) 동양윤리사상의 연원,전개,의의	유학, 도가, 불교의 원시사상과 발전과정 및 현대적 의의
IV. 윤리사상의 흐름과 특징	2. 서양의 윤리사상	(1) 서양윤리사상의 연원	초기크리스트교 사상,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IV. 윤리사상의 흐름과 특징	3. 한국의 윤리사상	(1)~(3) 한국윤리사상의 연원,전개,의의	원사신앙, 단군신화, 유교, 도교, 불교, 원효와 지눌과 외천의 사상, 성리학과 동학

‘I. 인간과 윤리’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에서 보는 인간의 특성과 유교, 불교, 도교, 크리스티교에서 보는 인간관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인간의 존재 개념, 인간의 본성, 인간의 실존, 도덕성 회복 및 도덕적 인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II. 사회와 윤리’에서는 종교 일반에 대하여 종교의 의미와 기능, 종교와 윤리의 관계, 종교 사이의 평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IV. 윤리사상의 흐름과 특징’에서는 동양과 한국의 여러 다양한 종교 사상과 윤리에 대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서양의 크리스티교에 대해서는 주로 윤리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제 제7차 도덕과에서 나타나는 종교윤리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제7차 도덕과의 종교윤리 관련 내용

교과목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구체적 내용
도덕				없음
시민윤리	II. 현대사회 문제와 시민윤리	4. 문화, 예술, 종교와 윤리	(3) 종교 활동과 경건한 삶	종교의 본질, 과학과 종교의 관계, 종교와 윤리의 관계
윤리와 사상	I. 윤리와 사회사상의 의의	1. 인간의 삶과 윤리	(2) 다양한 인간관	동서양 종교와 인간관과 한국 종교의 인간관
	II. 윤리의 흐름과 특징	1. 한국윤리	(1)~(3)한국윤리의 연원, 전개, 의의	원시선양, 단군신화, 유교, 불교, 도교, 동학, 그리스도교
	II. 윤리의 흐름과 특징	2. 동양윤리	(1)~(3)동양윤리의 연원, 전개, 의의	공자, 맹자, 순자, 석가모니, 노자, 장자, 제자백가, 성리학, 양명학, 대승불교, 오두미교, 현학 등
	II. 윤리의 흐름과 특징	3. 서양윤리	(1) 서양윤리의 연원	그리스도교 개요,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II. 윤리의 흐름과 특징	4. 세계윤리	(3) 세계윤리의 전망	세계윤리와 종교적 평화
	IV. 한국윤리 및 사회사상의 정립과 민족적 과제	2.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윤리사상 정립	(1) 한국 전통윤리 사상에 대한 이해	원시윤리, 유교윤리, 불교윤리, 도교윤리
전통윤리	I. 전통윤리의 의의와 기본정신	3. 전통윤리의 본질과 기본이론	(1) 전통윤리의 사상적 배경	원시선양, 유학, 불교, 도가,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 그리스도교
	I. 전통윤리의 의의와 기본정신	3. 전통윤리의 본질과 기본이론	(2) 전통윤리의 우주관	유불도의 하늘 개념, 유불도의 자연관, 풍수지리사상
	I. 전통윤리의 의의와 기본정신	3. 전통윤리의 본질과 기본이론	(3) 전통윤리의 인간관	유불교의 인간아해, 유불교의 이상적 인간상과 이상사회
	I. 전통윤리의 의의와 기본정신	4. 전통윤리의 현대적 계승	(2)~(3)전통윤리의 특성, 계승, 적용	유불도의 지혜와 사상적 근거, 유교문화의 부활, 무속과 민간신앙

(표계속)

	II. 개인과 가족의 가치 있는 삶	1. 인격수양의 길	(1) 인격수양은 위대한 일	노장의 도(道), 천도와 인격수양, 유불도의 이상적 인간상
	II. 개인과 가족의 가치 있는 삶	1. 인격수양의 길	(2) 전통사상의 인간관과 수양원리	유학의 사단과 수신, 불교의 불성과 수행, 도가의 덕과 무위자연
	II. 개인과 가족의 가치 있는 삶	1. 인격수양의 길	(3) 극기를 통한 인격수양	유불도의 절제와 인격수양
	II. 개인과 가족의 가치 있는 삶	2. 부모, 조상공경과 효친	(3) 조상 섬김의 전통과 현대적 의미	조상 섬김의 의미, 현황, 문제점, 방향
	II. 개인과 가족의 가치 있는 삶	3. 부부간의 분별과 화합	(1) 동서양의 남녀관	역(易), 태극(太極), 음양(陰陽), 성서의 남녀관
	III. 천직, 이웃, 교우 관계와 바람직한 삶	1. 천직 윤리와 노인 공경	(2) 천직 문화와 천직 윤리	가르, 신주, 중벌, 사대봉제사
	III. 천직, 이웃, 교우 관계와 바람직한 삶	4. 관혼상제	(2) 상제례의 기본정신과 절차	사후 제제, 혼백(魂魄)
	III. 천직, 이웃, 교우 관계와 바람직한 삶	4. 관혼상제	(3) 제례의 기본정신과 절차	제례의 유래와 정신, 제사의 종류와 절차, 현대의 제례문제
	IV.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고 자연을 아끼는 삶	4. 전통적 자연관과 자연 친화	(1) 조상들의 자연관	유학의 천안합일, 도가의 무위자연, 불교의 연기설과 방생(放生)

‘도덕’에서는 종교윤리 관련내용이 없다. ‘시민윤리’에서는 종교 일반에 대하여 종교의 본질, 과학과 종교의 관계, 종교와 윤리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윤리와 사상’에서는 동서양 종교에서 바라보는 인간관과 한국 종교의 인간관, 한국의 원시 신앙과 단군 신화, 한국의 유교, 불교, 도교, 동학, 그리스도교, 동양의 공자, 맹자, 순자, 석가모니, 노자, 장자, 제자백가, 성리학, 양명학, 대승불교, 오두미교, 현학, 서양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개요,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세계 윤리와 종교적 평화, 한국의 바람직한 윤리 정립을 위한 원시윤리, 유교윤리, 불교윤리, 도교윤리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전통윤리’에서는 원시

신앙, 유학, 불교, 도가,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 그리스도교, 유불도의 하늘 개념, 유불도의 자연관, 풍수지리사상, 유불교의 인간이해, 유불교의 이상적 인간상과 이상사회, 유불도의 지혜와 사상적 근거, 유교문화의 부활, 무속과 민간신앙, 노장의 도(道), 천도(天道)와 인격수양, 유불도의 이상적 인간상, 유학의 사단(四端)과 수신, 불교의 불성과 수행, 도가의 덕과 무위자연, 유불도의 절제와 인격수양, 조상 섬김의 의미와 현황과 문제점 및 방향, 역(易), 태극(太極), 음양(陰陽), 성서의 남녀관, 가묘(家廟), 신주(神主), 종법(宗法), 사대봉제사(四代奉祭祀), 사후의 세계와 혼백(魂魄), 제례의 유래와 정신, 제사의 종류와 절차, 현대의 제례 문제, 유학의 천인합일, 도가의 무위자연, 불교의 연기설과 방생(放生) 의식 등 우리의 전통적 종교윤리 관련내용을 매우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제6차 및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하여 종교윤리 관련내용을 살펴 보았다. 이제 그 내용들의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도덕과의 종교윤리 관련내용은 현저하게 전통적인 유교, 불교, 도교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99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종교인구 통계를 보면, 전체 종교인구 53.6%, 불교 26.3%, 기독교인 25.6% (개신교인 18.6%, 천주교인 7.0%), 유교 0.7%, 원불교 0.2%, 천도교 0.1%, 기타종교 0.8% 이었다(통계청 종교인구 통계, 1999). 통계수치를 감안한다면 현재 도덕과의 종교윤리 관련내용은 지나치게 유교와 불교와 도교 위주로 짜여져 있다. 물론 유불도교는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이라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불도교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일반 종교에서 제시하는 모든 해답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불도교에서 제시하는 윤리사상은 종교윤리 관련내용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에 비하면 현재 기독교인의 수가 25.6%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덕과의 기독교 윤리 관련내용은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도덕과는 동서양의 윤리 관련 사상을 총망라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한국인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덕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과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인이 처한 구체적 상황을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 종교윤리와 관련해서는 한국인들의 종교 분포나 한국인들의 종교적 성향과 같은 구체적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한국인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 그 상황에 적합한 것을 가르쳐야 학교에서 배운 도덕적 지식을 구체적 삶에서 적용하여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도덕과의 종교윤리 관련내용은 종교간 구성 비율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종교 간 구성비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종교윤리교육은 피교육자에 대한 호소력이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종교적 이해관계에 입각한 소아(小我)적 주장이 아니라, 학생들의 도덕적 삶에 더 좋은 실질적 영향을 끼치려는 도덕교육적 목적에 입각한 대아

(大我)적 주장이므로, 종교적 이해관계에 입각한 편파적 주장이라는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종교윤리 관련내용이 실제적인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종교윤리가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있으려면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종교적 감정이나 신념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과서 구성은 종교적 신념과 종교윤리를 연결시키고 있지 않으며, 종교적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도 없다. 물론 종교적 감정이나 신념에 호소함으로써 도덕적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은 가정이나 종교단체에서 우선적으로 해야겠지만, 국민 전체의 도덕적 삶을 그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 공교육은 마땅히 종교윤리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도덕교육이 반드시 신념과 감정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종교윤리는 신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도덕적 감정이 도덕적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종교적 감정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교윤리의 내용 구성은 논리적 체계나 교리적 근거의 제시 없이 단순하게 이리이러한 내용이 있거나 이리이러한 내용을 주장한다고만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즉 단순 나열식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경우 우리는 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밝히지도 않고 단지 사랑하라는 내용을 주장했다고만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단순 나열식 서술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든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든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도덕과에 나오는 종교윤리 관련내용의 서술 방식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물론 같은 종교 안에서도 교리와 윤리적 덕목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종교윤리교육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셋째, 제7차의 ‘도덕’ 및 ‘시민윤리’에는 종교윤리 관련내용이 거의 없고, 모든 도덕과목에서 학생들의 도덕적 삶에 영향을 줄 만큼 종교윤리가 심화 있게 포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선택과목인 ‘시민윤리’와 심화선택과목인 ‘윤리와 사상’ 및 ‘전통윤리’를 선택해서 배우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떤 학생들은 종교윤리를 전혀 배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배우다고 하더라도 각 종교에 대하여 깊이 있게 포괄적으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 종교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도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도록 내용이 짜여져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경우 성서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福音)’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하여 기독교의 본질이 빠져 있는 것이다. 이 본질을 모르고서는 기독교 윤리에 대해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상적으로 다가올 뿐이다.

2. 도덕과의 종교윤리교육 활성화 방안

종교와 관련하여 청소년기는 아동기처럼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

적 체계에 비추어 보아 이치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에 믿는 시기이며, 여러 이유로 인하여 종교적 회의를 가져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기에는 종교적 감정이 형성된다(정현숙, 1995, pp.146-147). 그리고 대학보다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종교가 자신들에게 중요하다는 신념이 현저하며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많다(권이중, 1997, p.245). 이러한 시기에 종교와 종교윤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 종교들을 소개하여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종교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게 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도덕적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돕는 점에서도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은 기초, 즉 뿌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은 뿌리가 없는 것이 그 특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분명한 확신이 없이 사대의 풍조와 분위기에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이것은 현대인들을 방황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뿌리를 견고하게 하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즉 분명한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관점의 정립은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단순한 도덕적 지식이나 도덕적 명령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양심에 대한 규범적 호소만으로는 도덕적 삶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즉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의 올바른 정립이야말로 자연스럽게 도덕적 삶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철학과 종교 및 종교윤리 교육은 도덕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종교윤리교육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제 지금까지 논의한 도덕과의 종교윤리교육 실태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덕과에서 종교윤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자.

첫째,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종교윤리교육을 중요한 도덕교육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종교윤리 관련내용을 양적, 질적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도덕과의 모든 과목에서 종교윤리를 다루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서의 '도덕', 일반선택과목으로서의 '시민윤리', 심화선택과목으로서의 '윤리와 사상' 및 '전통윤리'에서 각각 종교윤리를 다루는 깊이와 폭이 달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과목에 포함시킬 종교윤리의 종류와 내용은 앞으로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종교윤리 및 도덕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종교윤리 관련내용이 반드시 중요한 종교적 교리와 함께 연결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과 같은 근본적인 관점과 도덕적 생활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종교적 신념

- 2) 오늘날 한국의 교육에서 철학교육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근본적인 관점을 배우지도 소유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그 원인 중의 하나이다. 종교 및 종교윤리교육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도덕적 행위로 표출되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경우 창조론, 구원론, 종말론과 같은 중요한 교리들을 설명하고 이것과 연결하여 기독교 윤리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다는 것, 타락한 죄인들을 사랑하여 구세주에게 죄 값을 지불하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해주었다는 것, 세상은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등을 설명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기독교적 시각에서 인생과 세계와 가치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되고 이것에 기초하여 도덕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종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결코 교리교육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리교육에 근거한 윤리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종교심이나 종교적 감정에 호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며, 종교심이나 종교적 감정은 인간의 본질이다. 도덕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간이 본래 타고난 종교심이나 종교적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경우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 인간을 구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동일시, 거룩함에 대한 동경심, 자신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등 여러 가지 종교적 감정이나 마음에 호소하는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이처럼 종교심이나 종교적 감정에 호소하는 교육내용들은 학생들의 마음과 행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종교 분포에 맞추어 고등학교 도덕과의 종교윤리 관련내용이 종교간 구성비율을 합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하였던 종교 분포에 비례하여 종교윤리 관련내용의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국민의 종교적 감정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리고 종교윤리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타당한 것이다. 도덕과 교육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한국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그들의 도덕적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역시 도덕과 교육의 중요한 대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종교라는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지 말고 가능하면 덮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결코 우리의 도덕교육이 지금보다 더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시한 고등학교 도덕과의 종교윤리교육의 문제점을 감안하고 종교윤리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적용하여 고등학교 도덕과의 ‘윤리와 사상’에서 나타나는 기독교 윤리 관련내용을 수정하여 더 바람직한 내용 구성의 한 실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윤리들의 내용 구성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며, 종교윤리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제7차 도덕과 <윤리와 사상> pp. 108-109.

II. 윤리의 효용과 특징 3. 서양윤리 (1) 서양윤리의 연원

중세 그리스도교의 윤리

“서양윤리 사상의 또 다른 연원은 그리스도교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도교의 토대는 유대교이다. 유대교는 유대인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이다. 그런데 아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서 예수가 출현하였다. 예수는 그 자신이 유대인이었으나 민족의 차원을 넘어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와 가르침은 산에 대한 사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핵심으로 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를 구세주이자 신의 아들로 믿게 되었고, 이러한 믿음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 그리스도교의 아들로 널리 퍼져 나갔다.”

(예수의 출현은 그리스도교가 세계적 종교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도덕과에서 기독교에 대해 부분적으로 몇 군데 조금씩 다루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독교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이 전부이다. 이것은 아마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역시 위에서 이미 제시한 종교윤리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위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수정한 내용구성 1

II. 윤리의 효용과 특징 3. 서양윤리 (1) 서양윤리의 연원

그리스도교의 윤리

“서양윤리 사상의 또 다른 연원은 그리스도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도교는 구약성서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구세주, 그리스도)가 곧 예수라는 것을 믿는 종교이다. 그리스도교에 의하면, 유일한 신(神)인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고, 특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 자신의 욕심과 뜻을 따라 살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은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급기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여러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였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메시아(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자신이 구세주임을 증거하고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 고난 받고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였다. 그는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지만, 이제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였는데, 이 사랑의 윤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과 함께 온 세상에 퍼져 나갔다.”

(예수의 출현은 그리스도교가 성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정한 내용구성 2

<탐구 과제>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며 고난 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난 받고 죽어야 마땅한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항상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 위 글은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2. 그리스도교에 의하면 왜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까?
3. 그리스도교에 의하면 종교적 구원과 도덕적 삶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수정한 내용 안에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들어있어 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도덕적 삶에 대한 종교적 동기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다. 또 탐구 과제 안에는 학생들의 종교심이나 종교적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기독교인은 물론이거니와 비기독교인에게도 도덕적 감정과 의지를 자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정은 다른 종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여기서는 기독교 윤리를 그 한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을 뿐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한 것은 ‘윤리와 사상’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내용체계를 유지한 채 구성내용만을 수정한 것으로서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도덕과의 종교윤리 관련내용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대단원의 한 단원을 종교윤리 단원으로 할애하여 양적으로 종교윤리교육을 확대하고 질적으로도 실질적인 도덕적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종교윤리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도덕교육 및 인성교육을 실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종교윤리교육의 활성화는 도덕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확신한다.

IV. 결론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다. 우리는 인간의 종교적 특성이 도덕에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최대한 늘리고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개념으로부터 우리는 윤리적 존재와 종교적 존재가 서로 동일선상에 있으며 갈 등하지 않고 본질상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윤리적 실존은 종교적

실존으로 나아감으로써 더욱 수준 높은 도덕성을 설정하고 이를 추구해나가게 되며, 이를 통해 자아의 질적 발달을 가져오게 된다. 베르그송이 말한 바, 정적 종교가 관습적 도덕의 기반이 되고 동적 종교가 창의적 도덕을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은 종교가 어떠한 측면에서든지 도덕을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으로서 종교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틸리히는 종교가 근본적으로 윤리적인 것처럼 도덕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도덕과 종교가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종교윤리교육은 윤리교육에서 필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와 이웃의 관계보다 우선한다. 즉 신앙은 윤리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신앙은 윤리를 초월하면서도 윤리를 포괄한다. 복음과 연관지어 설명할 때에도 역시 신앙은 윤리보다 우선한다. 신앙이 전제될 때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삶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여 종교적 측면과 연결될 때 윤리적 영역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준다.

인간의 종교적 성향이나 특성, 종교적 신념, 종교적 참여 및 종교적 언어 사용이 도덕적 태도와 도덕적 실천의지 및 도덕적 삶에 끼치는 영향은 이미 여러 경험적, 실증적 연구에 의해 잘 알려져 왔다. 이러한 경험적, 실증적 연구 결과들은 종교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종교와 윤리의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 결과들은 종교가 도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종교가 도덕적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하고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종교윤리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종교윤리는 우리에게 도덕적이어야 할 보다 근본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어 도덕의 설득력을 강화시켜준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체계는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전인적인 차원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따라서 도덕교육이 종교생활과 연결될 때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과의 교과교육학적 관점에서도 종교윤리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잘 입증된다.

제6차 및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하여 도덕과의 종교윤리 관련내용을 살펴본 결과, 도덕과의 종교윤리 관련내용은 현저하게 전통적인 유교, 불교, 도교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인의 종교분포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종교간 구성비율로서 도덕과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본다. 또한 종교윤리 관련내용이 종교적 감정에 대한 호소, 신념과 윤리의 연결,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제시 등 실제적인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학생들의 도덕적 삶에 영향을 줄 만큼 종교윤리가 심화 있게 포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종교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도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도록 내용이 짜여져 있다.

인생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즉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의 바른 정립은 도덕적인 삶에도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종교윤리교육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종교윤리교육을 중요한 도덕교육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종교윤리 관련내용을 양적, 질적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종교윤리 관련내용이 반드시 중요한 종교적 교리와 함께 연결하여 제시되도록 함으로써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과 같은 근본적인 관점과 도덕적 생활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동시에 종교적 신념이 도덕적 행위로 표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인간이 본래 타고난 종교심이나 종교적 감정에 호소하는 교육내용들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음과 행위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종교 분포에 맞추어 고등학교 도덕과의 종교윤리 관련내용이 종교간 구성비율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종교적 감정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리고 종교윤리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타당한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철저한 다종교 사회에서 정교분리(政教分離)의 원칙은 거의 무의미해졌다(김중서, 1990, p. 244). 그리고 종교윤리교육은 정교분리의 정책과는 별도의 문제이다. 정치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이 종교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강조하는 원칙으로 인하여 종교교육 및 종교윤리교육이 약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종교 및 종교윤리교육이 교육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은 정교분리 사회에서 종교와 같이 민감한 문제는 무조건 덮어두는 것이 좋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하며, 종교를 도덕교육의 장(場)으로 끌어내어 도덕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6). **고등학교 윤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6). **고등학교 윤리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권이중(1997). **청소년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용환(1991). 윤리와 종교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충북대 학생생활연구**, 15.
- 김응태(1997). 종교가 인간의 윤리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 신학과 사상**, 19.
- 김중서(1990). 종교교육 실태분석. **철학-종교 사상의 제문제(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중서(1992). 학교 도덕교육에 영향을 주는 종교적 변수. **교육개발**, 14(6).
- 김중기(1973). **신앙과 윤리**. 서울: 종로서적.
- 나학진(1984). 동서 종교윤리의 비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종교와 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임병덕(1998). **키에르케고르의 간접전달**. 서울: 교육과학사.
- 정진홍(1990). 종교교육의 실태. **철학-종교 사상의 제문제(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현숙(1995). 청소년 선도와 종교교육. **경희대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11.
- 통계청 종교인구 통계(1999). <http://kosis.nso.go.kr>
- Bergson H., 송영진 역(1998).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서울: 서광사.
- Edward Leroy Long Jr. *Religion, Morality and Christian Ethics*. 고재식 편역(1985), **기독교 윤리학 방법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Kierkegaard S. 손재준 역(1983). **죽음에 이르는 병**. 서울: 삼성출판사.
- Küng H. Projekt Weltethos. 안명옥 역(1992). **세계윤리구상**. 분도출판사.
- Lesnick H.(2000). Listening for God: Religion and Moral Discernment. *The Journal of Religion*, 80(1).
- Scheepers P. & Van Der Slik F.(1998). Religion and Attitudes on Moral Issu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4).
- Taylor M. J.(ed.). *Changing Patterns of Religious education*. 이기문 역(1995). **기독교 교육의 새 방향**.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논문접수 : 2004년 10월 6일 / 수정본 접수 : 2004년 11월 22일 / 게재 승인 : 2004년 12월 3일

ABSTRACT

The importance of religious ethics education and Methods to revitalize religious ethics education in Moral Education

Hong-Kyo Suh

(Teacher, Shin-mok High School)

We must try to bring on a continuous change in moral education. I think that our moral education has many problems in religious ethics education and it must be changed. This treatise proposes that religious ethics education is important and how it is and should be revitalized in moral education. Above all, theoretically I tried to ensure the importance of religious ethics education through the existence of Kierkegaard, the relation between religion and ethics and its classification by Bergson, the relation between religion and morals by Tillich, and the relation between faith and ethics in Christianity. Empirically I tried to ensure the importance of religious ethics education through the empirical results of research about how religion influences moral life and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religion and ethics. From a viewpoint of moral education, I tried to ensure the importance of religious ethics education in that the religious ethics gives more fundamental reason for moral life and the religious belief-system has more great effect on the whole life than other factors.

As for the actual conditions of religious ethics education in moral education, the contents of religious ethics doesn't have the rational component ratio among religions in comparison with Korean religious distribution. This is of little help to accomplish the object of moral education. The contents of religious ethics is not composed according to how to be applied to practical life. And the religious ethics is deeply, comprehensively not dealt enough to affect on the life of students. Even the essence of each religion is well not known to students. So we must regard religious ethics education as important field of moral education in high school curriculum, and then we must increase the contents of religious ethics, develop its contents. Religious ethics should be given in connection with essential religious doctrines. And It naturally connects moral life with fundamental viewpoints about

human life, value and world. It changes religious belief into moral acts. We must present the contents of education which appeals to religious mind and emotion. This shall give rise to the changes of mind and acts. The rational component ratio among religions in proportion to Korean religious distribution is very important in the composition of religious ethics. Because it is appropriate for the religious emotion of Korean people, and is necessary to accomplish the object of moral education. I don't think that the problem such as religion about which people are susceptible should be overlooked. Religion must be taken to the place of moral education and be used to accomplish the object of moral education.

Key Words : religious ethics, religious ethics education, moral education, religion, ethics